

기러기아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 문제

The 'Kirogi' Fathers' Changes of Lives and Adaptation Problem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전임강사 김 성 숙*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Kei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im, Sung-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lives and problems of 'Kirogi'(or Wild Goose) fathers, who were called fathers in the 'Kirogi' families, South Korean families separated by an ocean. They almost sent too much money that were 50~100% of their family income to the families abroad, and got economic pressures so severely. More or less, they sold their own real estates, moved to much smaller sized house. and often expended the saving money. Also, they had difficulties of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and felt lonely very much. By the hand, they might experience the adaptation process through 3 stages-troubles, acception(or wandering or enjoy), adjust (or violation). They had three types of problems, that is, family relationship problem(the isolation), psychological problem(loneliness and self-control), economic problem (financial pressure and drop of economic status). They found the strategi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for themselves. Firstly, they took lots of methods like email, internet chatting, phone, etc.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y everyday and made many events to strengthen the ties among families. Secondly, they got rid of stresses mainly by joining with their colleagues at work. Finally, they decided to lower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ir family in foreign country or tried to find their wives' jobs to prevent the financial hardship.

▲주요어(Key Words) : 기러기아빠('Kirogi' fathers), 기러기가족('Kirogi' family), 경제적 압박(economic pressure), 적응과정(adaption process), 심리적 문제(psychological problem), 경제적 문제(economic problem)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배경

최근 잇따른 사망 사건들을 계기로 기러기 아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기러기아빠란 가족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남아 직장생활을 해서 생활비를 송금하는 남성을 말한다. 주변에서 기러기 아빠를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만 봐도 우리 사회에서 그 규모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짐작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기러기 가

족 규모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없다. 대신에 조기유학생 통계나, 유학송금 통계 정도로 그 규모를 추산할 따름이다.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초·중·고 조기 유학생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할 정도이며(MBN, 2005.7.15) 매년 1만명이 넘는 조기 유학생이 출국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러기아빠의 전체 규모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러기 가족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교육열에 있다. 우리 사회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기러기아빠의 모습은 조선시대의 남편 교육 투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던 아낙네들, 아들 교육 투자를 위해 논 팔고 소 팔

* 주 저 자 : 김성숙 (E-mail : kssch@kmu.ac.kr)

던 경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역할 구조에서 변동이 생겼을 뿐이며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뒷바라지의 주역이 남편 대신 아들로 대치되었고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을 위한교육의 장소가 한국의 도회지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몇 년 사이에 양산된 기러기아빠들은 한국 남성의 문제로, 혹은 새로운 가족 형태로서 사회적 관심이자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기러기 아빠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¹⁾ 연구대상면에서 기러기 가족 자체나 가족 구성원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 면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주요 방법으로 채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의 연구경향은 기러기가족의 성격과 문제 등을 규명하려 하거나(조 은, 2004; 최양숙, 2005; 조명덕, 2000), 그리고 기러기아빠의 생활 모습의 전반적인 특징을 서술하고 사회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김양희·장은정, 2004; 엄명용, 2002). 기러기가족의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기러기 가족들이 이 '왜' 장기 비동거를 수반한 교육투자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모자녀 동일체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및 과거의 부정적 경험'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러기가족의 형태가 우리나라 가족의 탈근대화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논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기러기아빠의 전반적인 생활모습을 밝히고 있지만 주로 가족관계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었으며 또 가족구조의 변화나 기러기아빠가 양산된 사회구조적 배경 즉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선행연구들은 기러기 아빠의 경제적 상황에 관련된 변수들을 주로 문제의 배경 또는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 기러기 아빠들의 경제적인 상태는 가족관계 및 개인적 복지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언론기관의 조사를 제외하고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기러기아빠들의 구체적인 경제적인 부양수준과 부담 정도를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또 선행연구들은 기러기아빠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러기아빠관련 사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문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 가운데서 기러기아빠들이 그러한 생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과정도 생활문제의 규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러기아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생활변화에 쉽게 적응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기러기아빠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적응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정해체와 질병, 자살 등 극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러기아빠들의 생활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문제를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러기아빠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활 변화 모습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들의 생활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관심은 초기에 기러기아빠가 조기유학을 위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에서 출발하여 재정상태의 변화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경제적인 측면을 경제적인 측면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고 또 연구대상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비경제적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비경제적인 생활 변화에 대한 내용도 함께 연구 범위로 포함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기러기아빠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생활 변화를 서술하고 현재 경험하는 주요 문제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대처 방식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인 '면접'을 통한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제보자들의 사례들을 통한 그들 삶에 대한 심층적인 사실 묘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정된 제보자의 자료 분석 결과로 전체 기러기아빠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러기아빠의 생활이 이전과 달리 경제적 및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서술한다. 둘째, 기러기아빠가 생활의 변화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의 주요 유형을 진단한다. 셋째, 기러기아빠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기러기아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한다.

1) 우선 최양숙(2005), 조 은(2004), 엄명용(2002), 김양희·장은정(2004), 조명덕(2000) 등

II. 문헌 고찰²⁾

1. 기러기 아빠의 개념 및 규모

‘기러기 아빠’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정착되었거나 합의·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독특한 가족형태로서 사회와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술연구에서 기러기 가족, 기러기아빠 등의 용어가 종종 사용되고 있고 2004년도 새로 출간된 국어사전 「훈민정음」(금성출판사)에 본 용어가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러기 아빠란, 자녀를 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아내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 놓고 국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남자라고 정의된다. 기존의 가족 연구에서 기러기 아빠와 관련해서 학술적인 탐구 대상은 비동거 가족, 분거가족, 떨어져 사는 부부와 관련된다. 최근에는 이들을 통칭해서 비동거 가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동거 가족은 크게 국내 비동거 가족과 국제적 비동거 가족으로 나뉘어 지고 기러기 아빠는 국제적 비동거 가족에 해당된다.

기러기 아빠의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해외에 가족이 함께 있다 아빠만 귀국하는 경우다. 유학이나 외국주재 상사원으로 근무하다 부인과 아이들은 외국에 남는 경우다.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아내와 아이들만 외국에 나가는 경우이다. 이들은 늘 한 울타리에서 살았고 외국생활을 함께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되면 가장 힘들어한다. 셋째는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이민을 왔다가 자녀와 아내는 외국에 남고 아빠만 양쪽을 오가는 경우다(Korean Journal www.kjol.com, 2002.12.27).

한국의 기러기 가족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대신에 조기유학생 통계나, 유학송금 통계 정도로 그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³⁾.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조정

회의에 보고한 ‘최근 소비동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초·중·고 조기 유학생수도 2003년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MBN, 2005.7.15).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 3,573명이던 연간 조기 유학생은 1998년과 1999년 IMF시절에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해서 2003년도에는 1만149명에 이른다고 한다(조선일보, 2005.1.26). 또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도 서울시의 조기유학생은 12,317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6,385명, 중학생이 3,810명이고, 고등학생이 2,122명으로 초등학생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조선일보, 2005.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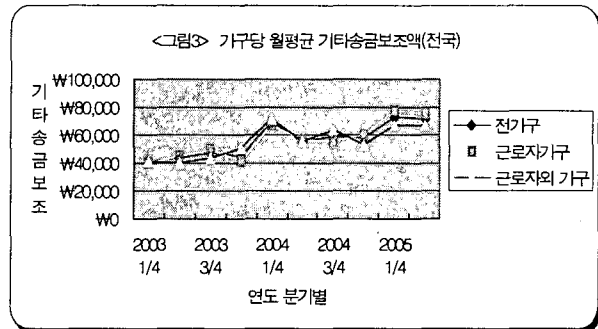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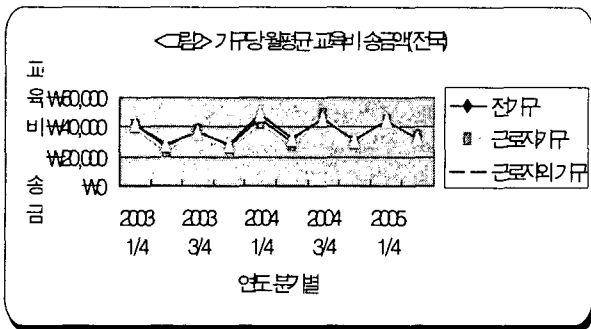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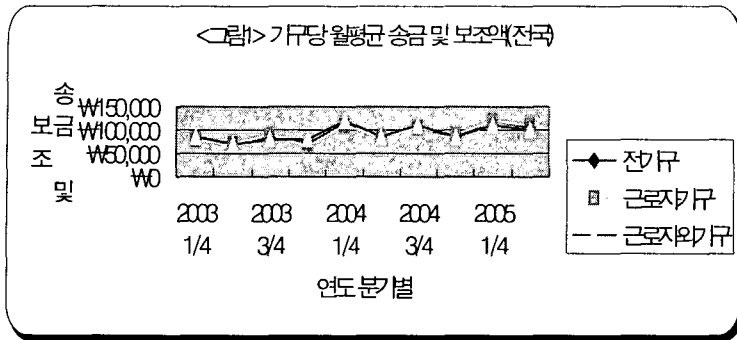
조기유학생의 국내 귀국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2005. 정기 국정감사 보고자료) 외국에서 국내 학교로 편입한 학생은 2002년엔 7,300명, 2003년엔 9,412명이었고 2005년에는 상반기까지 5,464명이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조선일보 2005.9.1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매년 전국적으로 만 오천명 정도의 조기유학생들이 출국하고 만천명 정도의 조기유학생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조기유학생 규모는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기타비소비지출은 교육비 송금, 생활비 보조로 구성되는데 전국가구의 기타비소비지출은 2004년도 2/4분기에 월평균 12만8천5백원에서 2005년 2/4분기에는 15만5천원으로 20.7%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조기유학생 증가 추세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통계청, 2005.8.2).

비소비지출의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2003년 이후 가구당 월평균 송금 및 보조 지출액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기타 비소비지출인 교육비 송금 및 보조 지출액은 2004년도 매년 1사분기와 2005년도 3사분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도 3사분기 이전까지는 근로자의 가구의 송금 및 보조 지출액이 근로자가구보다 높았으나 2004년도 4사분기 이후부터 근로자가구의 해당 지출액이 근로자외가구의 지출액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세부항목에서 교육비 송금의 추이는 각년도 1사분기와 3사분기에 상승했다가 2사분기와 4사분기에 하락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규모면에서 매년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2> 참조). 반면 생활비보조에 해당하는 기타송금보조의 경우 2003년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3>참조).

니가 아닌 아버지와 동반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대리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 2) 질적 연구에서 문헌 고찰을 어느 범위까지 이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관점이 있다. 일단 연구자는 현장작업을 하기 전에 문헌을 살펴보는 것은 안된다라는 관점이 있다. 또 다른 관점은 연구자는 이전의 연구결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선택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에 따라 기존 문헌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기러기 아빠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 경제생활이나 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측면을 연구한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연구자가 현장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연구를 시작한 초기에는 기존 문헌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심층면접과 신문스크랩이 진행되면서 문헌 고찰을 하였으므로 현장에서의 독립적인 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3) 조기 유학생의 경우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또 어머



자료: 통계청, 2005년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자료를 재구성

2) 선행연구 고찰

한편 기러기아빠의 선택이 '교육투자'라는 측면에서 인적자본투자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인적자본투자이론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육비용과 기대이익을 비교하여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자본투자이론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녀의 능력이 출중하여 높은 교육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교육시킬 여유가 있거나 이자율이 낮아 자산으로부터 기대이익이 낮을 때 증가한다고 설명된다. 기러기 가족의 교육투자의 특징은 우선 비용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전 재산을 다 쏟아 붓는 '과도한'투자임과 동시에 교육을 위해 전 가족의 생애를 다 바친 '전 생애적인 투자' 즉 희생을 감수하는 투자이다. 기대이익 측면에서 기러기 가족의 경우 교육투자 수익은 자녀에 대한 선별적이고 신중한 투자가 아니라 '위험추구적인'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을 통해 장래에 어떤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나 그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불확실한 투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러기 가족들이 '왜' 장기 비동거를 수반한 교육투자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교육투자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기러기아빠에 대하여 몇 편의 학술적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최양숙(2005), 조 은(2004), 엄명용(2002), 김양희·장은정(2004), 조명덕(2000) 등). 이들 연구들은 기러

기 가족 실태 전반 및 가족구조 변화, 기러기아빠의 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면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주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경향을 정리해 보면 최양숙(2005), 엄명용(2002)의 연구와 김양희·장은정(2004)의 연구는 '기러기아빠'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조 은(2004)의 연구와 최경석(2001), 조명덕(2000) 등의 연구는 기러기가족을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기러기아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엄명용(2002)은 7명의 전문직 남성들에 대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기러기아빠 생활 이후의 신체·심리·사회·경제적 변화, 분거 결정과정과 그 후의 만족상태, 분거 후 가족생활의 변화 및 장단점, 분거생활 대처 상황 및 사회적 지원, 가족개념 및 미래의 계획 등을 생활 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김양희·장은정(2004)의 연구는 8명의 제보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기러기가족을 탐색하였는데, 분석의 입장이 기러기아빠의 관점이라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러기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의 특징을 내면의 세계(자유로움과 자기절제 및 관리), 주변과의 관계(외로움), 그리고 성의 문제 등 세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또 가족과의 관계유지 방식으로 남편-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재해석하고 있고 '아버지'라는 자리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조 은(2004)의 연구는 보다 기러기가족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다본다. 그의 연구는 2001년부터 8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도시에서 기러기가족으로 20가족을 심층면담하고 포커스 그룹 면접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러기 가족'은 영어가 되는 엄마와 돈 있는 아빠의 조합이 기본 구도라고 보고 도적 가족주의를 표출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불안정한 부부생활을 토대로 한 안정된 가족의 미래를 지향하는 모순성을 드러내는 新글로벌 가족이 한국사회에서 탈근대 가족의 신호탄으로 불 것 인가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최양숙(2005)의 연구는 근거이론에 기초하여, 기러기 아빠의 비동거가족 경험 패러다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20명의 기러기아빠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비정상적인 이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기러기 아빠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로 '부모자녀 동일체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및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찾아냈다. 따라서 뚜렷하게 나타난 기러기 가족의 현상(중심 현상)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자녀 잘 키우기'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문제, 사회분위기, 가족구성원의 특징, 국제화 및 세계화·정보화 추세라는 조건(중재적 조건)으로 강화되면서 가족 비동거(상호/비상호 전략)로 귀결된다. 끝으로 기러기 아빠는 4가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만족, 일시적 독신생활의 균형을 누림, 그래도 가야함, 가족 해체이다. 최양숙은 그의 논문에서 기러기가족 등의 비동거가족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족 변화의 한 유형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모의 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 상실, 부부관계의 불안정화, 등지로서의 가정의 해체 특성이 기러기가족에게서 발견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기러기 아빠의 경제적 문제를 다룬 경우는 엄명용(2002)의 연구와 최양숙(2005)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엄명용(200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 기러기 아빠 7인이 겪는 경제적 변화는 주거 규모의 축소, 용돈이나 사회활동비용 축소 경향이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러기아빠' 봉급만으로 두 집 살림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수입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결론에서 기러기 아빠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는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식사 서비스, 아빠와 자녀 및 어머니 사이에 커져 가는 문화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엄마와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걸핍되기 쉬운 남성역할모델과 정서적 지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대책, 기러기 아빠의 응급상황 시 대응체계의 개발, 주변의 이해와 협조 유도방안, 가정불화의 도피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양숙(2005)의 연구에

서 기러기 아빠는 일정 기간 불가피한 독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취미개발, 각종 모임, 운동, 술담배, 살림하기, 일에 몰두하기, 친구와 이야기하기, 전문적인 분야 개발, 단순한 생활, 종교생활, 시간에 맡김, 개 키우기, 외도, 감정적 차단 등이 나타났다. 또 독거생활의 어려움이 심화되어도 한국 교육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자녀 조기 유학 결정이 잘 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전략이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내용에 적용해 보면, '기러기 아빠'는 돈 있는 존재이자 가족을 위한 도구로 이해되고 있으며 기러기가족은 탈근대화, 포스트모던 가족의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또 기러기아빠들은 다양한 생활변화를 겪는데 경제적 변화는 주거 규모의 축소, 용돈이나 사회활동비용 축소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비경제적인 변화는 내면의 세계(자유로움과 자기절제 및 관리), 주변과의 관계(외로움), 그리고 性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변화에 대한 그들의 적응과정은 당황->방황->인내->수용의 단계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전략은 취미개발, 각종 모임, 운동, 술담배, 살림하기, 일에 몰두하기 등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기러기 아빠'의 존재에 대하여 도구적인 존재로 설명하거나 기러기가족이 포스트모던 가족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부분적일 수 있다.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이나 등지로서 가정해체 현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인내하고 적응하는 대다수의 기러기가족을 볼 때 정신적인 가족 유대는 일반 가정보다 오히려 매우 강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성공을 위한 가족주의는 더욱 강한 가족유대를 초래하고 더욱 보수적인 가치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선행연구에서는 기러기아빠가 직면한 변화 양상에 대하여 개괄적이면서 다양한 내용을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제는 그들이 경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며 어떻게 그들 스스로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기러기 아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행동 방식은 선행연구를 근거해서 볼 때 개인적 차원, 당황->방황->인내->수용이라는 일반적인 적응과정을 거칠 것이다. 하지만 기러기 아빠들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적응 양상을 보일 것이므로 이제는 보다 상세하게 적응과정을 살펴보아야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상황을 반영하는 적응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기러기 아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게 성취가능한 해결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러기아빠'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개방형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 그리고 2001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기러기아빠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자는 초기에 기러기아빠들의 인터넷 사이트 활용을 원하였으나 협조를 얻기 어려워 연구자의 개인적 연결을 통하여 근접성과 편의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면접이 진행되었던 2005년 10월~11월 사이의 사회적 분위기는 면접 섭외 및 진행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러기아빠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또 현지 기러기 가족의 엄마들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 프로그램은 기러기아빠들을 위축시켰다. 기러기아빠들은 상당수 자신이 기러기아빠임을 속이려고까지 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은 '좀 창피해서'라고 하면서 면접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이외에 서면면접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기러기아빠들은 대체로 기러기아빠생활을 완료하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가운데 심층면접 자료는 어느 정도 기러기아빠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경향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보자의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보자를 추천받았고 면접에 기꺼이 응한 경우에만 면접을 하였기 때문에 제보자의 선정에 있어서 임의성을 갖는 한계를 가진다. 개인적 연결을 통해 기러기아빠를 소개받은 후에도 면접에 응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적었다. 특히 회사원이나 전문직들은 면접을 꺼리는 경향이 많았고 직업이 교수인 기러기아빠들은 상대적으로 허용적이었다. 주로 면접은 낮 시간 동안 제보자의 직장에서 평균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한 사례의 면접이 끝날 때마다 대상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를 즉시 작성하였다. 우선 면접 대상에게 녹음의 허락을 구한 후 녹음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과정에서 메모를 하였다.

심층 면접시 질문은 기러기아빠가 된 후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하도록 한 후 경제적 생활 부문은 확인질문 혹은 반대질문 등으로 답변을 보다 자세히 듣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은 답변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최대한 회피하였으나 경제적인

부분은 제보자도 기피하는 내용이므로 확인 질문 시에 솔직하고 담담하게 질문하였다. 면접과정에서 이야기는 제보자가 주도하였고 이야기의 내용은 자신에 대한 것보다는 외국에 간 가족들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이야기 내용은 경제적인 내용보다는 비경제적인 문제들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면접이 진행된 후에야 솔직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면접이 다 끝난 후에 제보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다 한 것 같다며 쑥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대면 면접을 곤란하게 생각하는 면접 대상들에게는 차선의 방법으로 서면 면접을 시도하였다. 우선 간략한 개방형 구조화된 질문지(총 12문항)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으며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2차례 이상 메일을 주고받았다. 개방형 구조화된 질문지는 2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추출된 주요 질문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 구성과 기러기가족이 된 과정을 물어보는 문항, 송금비용 및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질문하는 문항, 유학 송금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나 현재 부채 상태 및 재정적 수준을 질문하는 문항, 현재 소비생활과 달라진 생활 모습을 물어보는 문항, 적금이나 보험 등 금전관리의 변동 사항, 가족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느낌과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기러기아빠를 선택할 것인가 등을 질문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이나 서면면접에 응한 제보자들은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성과에 대해서 보다 과장적이고 송금액수에 대해서는 축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경제적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보자들 다수가 경제적 문제를 별로 겪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강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심층면접과 개방형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에서 나타난 몇몇 경제적 문제 사례 분석을 보완하고자 2001년부터 발생한 기러기아빠관련 언론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기사들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기러기아빠의 사망, 이혼, 질병, 이벤트, 사설, 기획기사이며 기사검색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사검색사이트(www.kinds.or.kr)를 이용하여 총 1,330건의 기사를 검색하였다. 이 가운데 다양한 매체에서 중복 보도된 관련기사들, 신문 등의 기획기사나 사설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건에 관한 기사들, 병원이나 대학에서 조사 발표된 신빙성 있는 자료관련 기사들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 이러한 기사들 가운데 통계자료는 기러기

아빠 규모를 추정하거나 기러기 아빠의 생활모습을 서술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 가운데 기러기 아빠 개인의 경제생활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만을 채택하여 그 사례들을 정리하였는데 총 16개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보통 언론 기사들에 대한 양적 분석은 빈도를 측정하거나 다루어진 분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한 본 연구의 경우 이러한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정된 기사들에 나타난 16개의 '사례'를 발췌하여 그 질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기러기아빠의 심층면접 세 가지 사례 모두 직업이 교수였다. 개방형 질문지 조사의 경우 여섯 사례는 회사원 또는 중소기업 사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의사 또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아빠가 전문직에서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회사원들을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신문기사 내용분석의 사례들은 의사나 교수, 회사원 또는 중소기업 사장 등 직업별로 다양하였다. 분석의 보충적인 사항으로 남성으로서 기러기아빠의 문제와 여성으로서 기러기엄마의 문제를 대비하고자

기러기 엄마(남편과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국내에서 생활하는 엄마) 한 사례를 심층 면접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기러기 아빠의 유형별로 본 사례들을 구분하여 보면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유학이나 국외 주재원 등 가족과 함께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살다가 아버지만 귀국한 경우는 사례2, 사례3, 사례4(기러기엄마)에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으로 아내와 자녀만 함께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는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세 번째 유형인 외국으로 이민간 경우로 아버지만 국내로 되돌아 와서 왔다 갔다하는 경우는 사례1과 사례5에 해당한다. 사례1의 경우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특이한 상황으로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 이민의 경우에 해당된다.

IV. 기러기 아빠의 생활 변화

1. 송금 규모와 재정 상태의 변화

1) 송금 규모와 관련 요인

본 연구의 제보자들이 외국의 가정으로 송금한 액수는 최저 2천4백만원에서 1억 이상까지 매우 편차가 컸다. 본

<표 1> 제보자의 특성

		이름(가명, 나이,거주지)	직업 (부업)	유학처	배우자 (아내)	자녀(세)	집	가계소득	비동거 기간	비동거 상태
심층 인터뷰	사례1	박상우(52),대구	대학 교수	미국 LA	52세	딸 2명 (23,21)	원룸	6000만원	5년6개월	완료
	사례2	이해일(47),대구	대학 교수	미국 중부	47세	딸(23) 아들(21)	원룸	8500만원	2년	완료
	사례3	강동원(46),대구	대학 교수	미국 중부	43세	아들2명 (17, 13)	아파트	6500만원	3개월	진행중
	사례4 (기러기엄마)	이삼순(47),서울	회사원	미국 보스턴	남편 46세	딸(15) 아들(11)	아파트	1억원	2년	완료
개방형 질문지	사례5	차승재(40),서울	회사원	캐나다 토론토	40세	아들(12)	부모동거	1억 여원	3년6개월	진행중
	사례6	김현우(48),서울	중소기업 사장	캐나다 밴쿠버	45세	아들(17)	아파트	8000만원	4년11개월	진행중
	사례7	권진수(42),서울	회사 임원	미국 샌디에고	38세	딸 2명 (12,10)	부모동거	1억원	1년3개월	진행중
	사례8	황상국(68)대구	무역업사장	영국 런던	65세	아들2명 (38,36)	주택	-	8년간	완료
	사례9	손강호(41)경북	회사원 및 자영업	뉴질랜드	36세	아들(9) 딸(8)	부모동거	3500만원	3년	진행중
	사례10	신제동(41)대구	회사원	캐나다 밴쿠버	41세	딸 2명 (12,10)	원룸	6000만원	2년	진행중

연구의 제보자들의 경우를 볼 때 월500만원~600만원을 송금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사례2, 사례3, 사례5, 사례6, 사례7, <표4> 참조). 이러한 규모는 매일경제신문이 2003년 8월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인 월평균 송금액은 4백18만원정도보다(매일경제, 2003.8.31) 조금 상승한 결과이다. 이 조사이후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의 월평균송금액은 이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보자의 경우 대체로 연봉의 50~80% 정도를 송금하고 있었고 100%를 송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저축금을 활용하는 등 재산 상태 변동이 필연적으로 나타났다.

유학 초기 송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초기 정착금이였다. 초기 정착금은 자동차 구입비나 각종 보험비 등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경우 주택 구입에 소요하고 있었으며 유학 초기에 상당액이 지출되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유학 전에 초기정착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학 정착 초기에 경제적으로 더 충격을 준 부분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사례7의 경우 초기정착금으로 4만불이 소요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사례2의 경우 초기에 5만~6만불 정도를 가지고 갔으며 이것이 정착에 매우 큰 힘이 된 것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생활비 송금 규모에서 각 가족마다 편차가 큰 이유는 거주 지역, 현지 생활수준, 사교육비 여부, 아내의 소득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제보자들이 송금한 금액은 현

지 생활비에 대부분 소요되고 있었다. 제보자들의 경우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들은 주로 공립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공교육비는 거의 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주거비, 기초생활비, 사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에 소요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거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는 고정적 지출 성격을 가지며 필수적인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송금액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주거비 규모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컸으며 미국 대도시의 경우 주거비 지출액이 매우 컸다. 사례7의 경우 유학지가 미국 샌디에고인데 월평균 주거비가 1,500달러에 달했으며 사례4의 경우 유학지가 보스턴인데 대학교내 주거시설이어서 주거비용이 사설주택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2백만 이상이 지출되었다. 이들 미국이나 영국 등 대도시에 유학한 제보자들은 주거비의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 송금규모도 가장 컸던 경우이다.

다음으로 현지 생활비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사교육비'였다. 조기 유학생들이 현지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종종 이용되고 있었는데 실제 사교육비는 필수적인 지출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교육 시행여부에 따라 생활비는 상당히 달랐다. 사례4(기러기 엄마)의 경우 자녀 2명의 사교육비만 월 평균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였고, 사례4의 경우 사교육비가 50~60만원 이상 든다고 하였다. 사례7의 경우 영어, 악기와 체육활동

<표 2> 제보자들의 외국 송금 규모

제보자	송금액(가계소득의 %)	특 징
사례1	3천6백만원(60%)	현지 문화생활비 전혀 없었음, 아내 아르바이트(월 500~1,000달러)
사례2	3천5백만원(50%)	현지 문화생활 별로 하지 않음, 아내 아르바이트(월 1,000달러)
사례3	6천만원(90%)	현지 문화생활 약간 즐기고 있음
사례4	1억 정도(100%)	학교 하우징 거주(35평), 현지 문화생활에 치중, 음악과 영어 위주의 사교육비 등 많이 지출, 국내 거주 기러기 엄마로 본인의 월급과 남편의 월급을 포함하여 송금
사례5	7천~8천만원(70%)	부업(컨설팅), 현지에서 어느 정도 문화생활, 음악과 운동 위주의 사교육비(50~60만원)
사례6	7천2백만원(80%)	
사례7	6천만원(60%)	사교육비(1,000달러 정도), 주거비(1,500달러)
사례8	1억4천만원(재산처분)	비상금을 항상 비축하는 것을 중요시 함
사례9	3천5백만원(100%)	부업(가게운영)소득으로 국내 생활, 현지 문화생활 거의 하지 않음
사례10	2천4백만원(60%)	아내 아르바이트(월 1500달러), 현지 문화생활 거의 하지 않음

등의 사교육비로 매월 100만원가량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 사례 1의 경우에 '생존'만을 생각했지 사교육비 등은 업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전혀 들지 않았고 연 3천만원 정도 송금해도 현지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 외 사례2, 사례3, 사례9, 사례10의 경우는 악기 교육정도에서 사교육이 필요했다고 말하는 등 사교육비의 부담이 작았다고 한다. 앞의 사교육비에 상당액을 지출한 제보자의 송금액은 7천만원에서 1억여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현지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가정인 경우 상대적으로 송금액 규모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유학지 가족들의 생활수준도 송금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4>의 각 사례의 특징을 보면 문화생활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가족인 경우 송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3의 경우는 문화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사례4의 경우는 짧은 유학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최대한 누리려고 한 경우이다. 사례5의 경우는 특별한 문화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화나 콘서트, 헬스(엄마), 레저(캠핑, 스키), 외식(주1회 정도) 등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 사례의 총송금비용은 연 6천만원에서 1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들 아내의 수입여부가 송금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보자 가운데 아내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세 사례였다. 이들은 친척집 가게나 한인교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소득의 규모는 월 500달러에서 1500달러 수준이었다. 비록 부인이 버는 소득 규모는 작지만 기러기 아빠 입장에서는 적지 않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사례2의 경우 아내가 작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송금은 일년에 두 번 방문시에 보내고 있었으며 매월 일상적인 생활비용에 대한 송금으로 인해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아내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 그 경제적 규모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러기아빠들의 경제적 압박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 재정 상태의 변화와 경제적 부담

자녀 조기유학에 따른 경제적 지출이 기러기가족의 재정 상태에 어느 정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자녀 유학 후 재정상태의 변화를 질문하여 보았다. 제보자들의 경우 대부분 '큰 변화'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다. 또 제보자들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재정 상태면에서 기존 재산 특히 부동산의 처분 사례가 많았으며 저축금의 인출이 다소 나타

났다. 그리고 기러기아빠들이 본인의 부모와 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도심에 있는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로 집을 줄이는 경우도 나타났다. 원룸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지출을 줄이는 한편 여유자금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의 편의 때문이다. 제보자의 경우 10명의 기러기아빠 가운데 부모와 동거하는 3명을 제외한 7명 가운데 3명은 원룸으로 집을 축소하였고 2명은 작은 아파트로 주거의 규모를 줄였으며 1명은 교외로 이사를 하여 주거 규모를 줄였다.

제보자 가운데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사례2, 사례3, 사례5, 사례8, 사례9, 사례10으로 6명이나 된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살던 집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한 경우에 소유하는 집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사례8, 사례9)도 있었다. 사례5의 경우 이민을 갔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귀국한 상황으로 이민을 가면서 한국내의 집은 처분을 하였고 대신 현지에서 집을 장만하였다(시가 5억원). 현재 국내에서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지 필요하지 않지만 자그마한 오피스텔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또 국내에 들어오면서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송금 이외의 소득을 재테크에 활용하여 조기유학 전후의 재산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그 외 사례들은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산상태의 감소를 겪고 있었다. 사례2와 사례3의 경우 조기유학하면서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례8의 경우 유학 가기전 부동산 중 건물 2개를 미리 매매해서 비상금으로 준비했으며 집은 O시의 시내에서 교외로 이사를 하고 12년간 유학 뒷바라지 끝에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을 대부분 처분하였다. 항상 외지생활에서 돈이 모자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리미리 부동산을 처분해서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례9의 경우에 적금을 해약하지는 않았으나 가지고 있던 집과 시골에 있던 땅을 처분하였다고 한다. 자녀 송금이나 국내 생활 보전을 위해 기존 저축금을 해약한 제보자는 사례1, 사례4, 사례7, 사례10 등이다. 이들은 주로 초기 정착금 지출을 위해 기존 저축금을 활용하고 있었다. 사례1은 자동차 구입을 위해, 사례4도 자동차 구입과 주거비 마련, 보험가입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사례7의 경우 "송금하면서 힘들다고 느낀 적이 많았고 저축한 돈을 축내고 있다"고 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약 3천만원을 더 썼다고 한다.

사례6의 경우 송금비가 매우 버겁다고 말하면서도 재산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단지 부채가 생겼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특별한 경우 주변의 도움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재정적 변화에 대해 깊

은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재정적 곤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가운데 자신의 소득의 50~70% 정도 송금하는 경우 '힘들기는 했지만 송금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반응인 반면 자신 소득의 80% 이상을 송금하는 제보자의 경우 송금액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반응하고 있었다. 또 제보자의 면담 과정에서 주변 사례에 대한 대화를 통해 유학 비용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러기 엄마의 면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재테크를 매우 잘해서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한 기러기 가족의 경제적 실패사례를 알려주었다.

“기러기엄마 생활을 1년 한 50대 시간강사를 하는데 애 셋을 캐나다 밴쿠버로 아버지 교환교수일 때 보냈습니다. 물가가 보스톤에 비하면 싼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대학 강사이고 아버지의 현지 월급이 많지 않아서 매우 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돈이 부족해서 분당에 있는 집을 팔고 분양받은 죽전 집을 살렸는데...두 집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6개월만에 빚이 6천만원이나 졌기 때문이에요. 또 시간강사이셨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잘 되지 않았어요. 분당집은 그 후 집값이 폭등하고 죽전집은 그대로여서 재테크에 완전히 손해 봤습니다. 그 분은 빚 갚느라 늘 고생했고 항상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사례1과의 면담에서 타인의 예)

제보자들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가족은 심층면담 사례나 개방형 설문조사를 꺼리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보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재산 처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고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수많은 기러기아빠들의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례9의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에서 살 때는 그런대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유학보내고 나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경제적 수준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자녀의 교육 투자를 위한 과도한 지출은 결국 부부의 노후자금 준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기러기아빠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사례2의 경우 조기유학결과 자녀들이 미국 사립대학에 무사히 입학했지만 대학교육비가 계속 경제적 압박을 주고 있다며

부부끼리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하였다. 사례10의 경우 “남들은 적금도 해약하고 빚도 낸다고 하던데 저희들이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애들 나중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몇 년 동안 저축도 못하고 있고 노후는 꿈도 못 꾸니다”라고 하면서 노후걱정을 하고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기러기아빠 사례가운데 다음은⁴⁾ 조기유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제적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경제적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러기 아빠가 경제적 변동에 영향을 받는 사업가, 자영업인 경우에 경기변동에 따른 위기를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벤처 열풍도 다 식어가고 새롭게 진행한 일도 많은 손실을 보게 되자,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더욱 무리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고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할까봐. 20여명의 직원도 15명 10명, 5명으로 줄여 갔지요. 너무도 절망스럽고 힘이 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아먹었습니다. 거의 부인과 함께 이루어 놓았던 재산들을 다 날리고 나서야 부인에게 어렵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이 컸었고 한동안 화상 채팅도 못하고 서로 낯나간 사람같이 지냈어요”(오마이뉴스, 2005.6.2).

한편 기러기아빠가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외로움->오락(도박성)->부채과다->신용불량->범죄로 이어진다. 이 사례는 기러기아빠들이 독거생활에 따른 외로움과 생활비 마련이나 유학 자금을 꼭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범죄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 1월 부인과 아들을 뉴질랜드로 유학 보낸 기러기아빠(48세)는 건강식품 판매 이사로 있다가 성인오락(경마, 바다이야기 등)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상품권위조에 손을 댔다. 그는 성인오락 3개월만에 3천만원을 날리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고 5,000원권 문화상품권 38만장(시가 19억원)을 위조하였다. 그는 생활비도 필요하고 가족들을 위해 유학자금도 마련해야 했다고 진술했다.(국민일보 2005.10.5)

4)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는 신문기사 내용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문제성 적발이라는 언론 보도 특성 때문일 것이다.

2. 비경제적 생활의 변화

1) 아버지 역할의 상실과 가족 유대의 약화

제보자들의 경우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은 예는 별로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면접과정에서 아버지로서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정서적 역할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가족의 장기간 비동거로 인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제보자 대부분 아버지 역할의 상실과 가족간 단란함을 느끼지 못했음에 대해 매우 불만과 후회를 나타내었다. 특히 가족관계에 성실한 제보자인 경우 이러한 상실감은 더 컸다.

“저는 가족끼리 살아가는게 좋다고 생각해요....가족은 엄마, 아빠가 밸런스있게 맞추어가면서 살아야 한다고...그런 생활을 놓친 것이 아쉽죠...지금 누가 간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해도 가족이 조화롭게 사는 게 좋거든요.....또 여기 와서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 매일 전화, 메신저, 이메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사례2)

“이런게 꼭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싶긴 하네요.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환경이 더 애들한테 좋을 거 같고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그 걸 찾을 수 있게 하는게 더 좋을 거 같은데”(사례10)

자녀를 조기 유학시킬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의 사춘기 극복문제인데 제보자들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어머니 혼자서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한다. 자연히 현지에 있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제보자들은 현지에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당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 때 제보자들은 아버지로서의 역할 상실감을 가장 많이 느꼈다고 한다.

“자녀사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매일 전화하니까 안 받을 수 없지요..엄마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힘들다, 짜증난다...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약 1년반정도 걸렸어요..특히 남자가 심했는데 엄마가 컨트롤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사례2)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아버지로서 자괴감이 생겼습니다”(사례6)

“차라리 대학만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면 성인이라 좀 안심이 되니까요. 사춘기 시절 예민한데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사례8)

언론 기사내용에서는 특히 ‘아버지 역할’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다. 즉 기러기가족에서 남아있는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차원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기러기 가족들의 경우 재정적으로 아버지에게 계속 의존하면서도 그 밖의 문제에선 자신의 영역에 아버지가 끼어들 여지를 거의 남겨 두지 않는다(오마이뉴스 2005. 6.2)고 지적한다. 결국 기러기아빠들을 돈버는 기계에 불과한 현대의 가족관계의 소산으로 보고 있다. 조은(2004)의 연구에서도 기러기아빠의 본질은 ‘돈 많은 존재이자 가족을 위한 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보자들은 자신을 ‘돈버는 기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단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다.

또 본 연구의 제보자의 면접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제보자들은 ‘아버지의 역할 상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아내와의 관계 및 부부생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사례8의 경우 본인은 사업일로 인해 영국방문이 쉬운 편이고 1년에 3-4개월은 영국에 있던 적도 있으니까 가족보기가 쉬웠는데도 견디기가 힘든데 다른 아버지는 정말 못 견디다고 하면서 본인이 보기에 기러기가족의 부부이혼율도 높고 주위에 10쌍정도가 있었는데 8쌍이 이혼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례3의 경우 기러기아빠 생활 후 ‘자꾸 술을 먹게 되고 애인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다’고 언급한 것처럼 부부생활의 문제는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이혼사례인데, 이 경우 이혼의 주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나타나 있지만 그 배경에는 남편의 사업실패가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은행 간부이던 A씨는 아들, 딸과 함께 부인을 러시아에 보냈는데 자녀들이 외국에서 자리 잡으면 부인을 불러들일 생각이었으나 아내는 계속 현지에서 머물렀다. A씨는 은행을 그만둔 뒤 회사를 차렸으나 2년 만에 부도가 났다. 다시 취직한 회사 역시 부도나는 바람에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98년까지 부인에게 2억 4000여만 원을 보냈고 부인은 직업 없는 남편이 남은 재산을 탕진할 것을 우려해 A씨는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바꿨고 별도로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던 중 부인은 99년 현지인과 사귀게 됐고 2001년 동거에 들어갔다. A씨는 2003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부인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5000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중앙일보 2005.1.2).

2) 독거생활에의 부적응 : 정서적 외로움과 자기관리

기러기아빠가 되면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정서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기러기 아빠가 당장 겪는 일상적인 문제는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가사노동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러기 아빠가 현재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기러기 아빠가 된 후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의 제보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3사례였다. 이러한 경우에 기러기 아빠의 일상생활은 부모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게 되고 또 가사노동이나 식생활 문제가 해결되므로 생활변화에 따른 적응이 쉽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기러기 아빠의 경우 집을 축소해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선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식생활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오늘 저녁은 또 뭘로 해결하나...먹을 자리가 생기면 끝까지 남아 있게 되요 거의. 저녁이면 약속을 잡기 위해 이곳저곳에 전화를 넣어보기도 합니다....저녁먹자고 걸려오면 절대 거절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저녁먹자고 전화를 오면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요”(사례3)

“일주일에 한번 빨래와 음식을 조금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오시긴 하지만 거의 세끼를 밖에서 해결합니다. 보통 세끼를 다 안 먹죠. 그 중에서 아침은 보통 우유 하나를 먹습니다.” (사례10)

위와 달리 상반된 견해를 가지는 제보자도 있었다. 사

례1의 경우 ‘사실 바빠서 돈을 쓸 데도 없어요. 밥은 주로 학교에서 먹는데 점심 저녁 다 학교에서 해결해요. 아침식은 간단히 선식으로 먹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기러기아빠 아니더라도 식생활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거의 점심 저녁을 학교 식당에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괜히 타인들이 불쌍하게 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식생활문제는 별로 없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제보자 모두 기러기아빠가 된 초기 3개월에서 6개월간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하였다. 기러기 아빠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술친구를 찾았다. 제보자들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했던 해결방법은 ‘술’이었다. 사례8의 경우 자녀를 영국에 보낸 후 무역관계로 일년에 3-4년 갔고 또 여러 달을 머물고 있었음에도 한국에 있을 때는 술집도 자주 간다고 하였다. 사례2의 경우도 ‘아이들을 보내놓고 초기 3개월은 일주일에 두세번은 동료들과 운동하고 술을 마셨다고’했다. 사례3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으며 특히 혼자 밥먹으로 식당에 가는 건 더 싫다고 토로하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말했다.

“처음 혼자 생활이 1-2개월 정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7-8년만에 다시 피게 되었습니다. 정말 뺨 뚫린 방을 보는 순간 어쩔 수 없었다. 술도 매우 자주 먹었습니다. 그때, 이민간 사촌동생의 경우 처음에는 기러기 아빠로 출발했는데 부인과 아이들을 보내 놓고 외로움을 혼자 이기지 못해 몇 달만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병명도 모른다고 하여서 겨우 몸을 추슬러서 아예 이민을 갔어요.”(사례1)

이렇듯 심리적 공허감과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에서는 기러기아빠의 질병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

<표 3> 2001년도 이후 발생한 ‘기러기 아빠’ 사망 사건

연도	당사자	원인	배경
2005. 10.17	50세	고혈압, 돌연사	사망후 5일만에 발견, 건축사무소 소장, 사업실패
2005. 3. 1	50세	자살, 우울증	4년 비동거, 사업실패
2004. 12. 9	50세	자살	10년 비동거, 사업실패
2004. 11.25	42세	자살	외로움
2004. 4.12	45세	자살	이혼후 양육권 다툼, 역대연봉 은행간부
2003. 10.25	49세	돌연사	
2003. 7. 2	36세	자살	1년 비동거, 사업실패, 본인 의도로 인한 이혼
2003. 3.28	42세	뇌출혈	6개월, 군인
2003. 3.26	41세	심장마비	2개월, 교수

면 조사대상 기러기 아빠의 52%(45명)가 각종 소화기계 질환을 갖고 있었다. 환자 45명의 주요 증상 중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위·십이지장궤양(22%) 기능성 소화 장애(18%) 알코올성 지방간(15%) 순이었다(한국경제신문, 2005.6. 19)5). 언론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발생한 기러기아빠들의 사망사건 자료를 정리하였다. 사망사건에 나타난 기러기 아빠들은 고혈압, 심근경색, 혈압 및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과로사 등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 기러기아빠들의 심리적 외로움과 경제적 압박관념이 고혈압이나 과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V. 기러기 아빠의 적응 과정과 문제 해결 방식

1. 독거생활에의 적응 과정과 유형

기러기 아빠들이 가족을 외국에 보내고 난 후 자신의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제보자들의 경험과정을 분석하여 보면 본 연구의 제보자들은 초기에 공통적으로 모두 적응 곤란을 겪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인데 제보자들은 가족이 없는 '텅 빈 집'으로 인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가족이 없는 '텅 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방황하는 생활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개월~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6). 이후 제보자들은 일정기간 초기 충격에 익숙해지면 자신만의 적응 스타일을 정착시키고 있었다. 제보자들의 적응 방식을 세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적응 유형은 자기관리 유형이다. '자기관리'라는 용어는 모든 제보자들에게서 똑같이 언급이 되는 핵심 단어였다. '외로움'이라는 충격의 단계를 벗어나면서 제보자들이 깊게 느끼는 것은 '자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것이다.

"누가 나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수밖에. 옆에서 챙겨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안 하면 그뻘 끝나는 거 아닙니까?"(사례1)

"떨어져 있는 가족 생각해서 술을 많이 즐겼습니다. 담배는 끊어 버렸구요. 운동(헬스)도 하고 건강관리를 오히려 더 잘 하고 있습니다"(사례5)

두 번째 적응 유형은 방황 유형이다. 제보자 가운데 방황유형은 독거에 대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유형으로 이러한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핵심단어는 '위축'이다. 아직 완벽히 자신의 결정이 잘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충족되었던 삶이 좁은 원룸으로 전락한 것이 적응되지도 않지만 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위축된다는 것이다7).

"별로 생활변화는 거의 없지만 운신의 폭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취미생활은 독서를 주로 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자괴감이 생겼습니다"(사례6)

"술직히 돈이 좀 넉넉하지 못하니 쌀 거 먹으러 자주 가죠. 막창에 소주나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보니 2년 동안 제 옷을 산 게 별로 없네요"(사례10)

세 번째 적응 유형은 향유 유형이다. 독거에 대해서 매우 편하게 생각하고 가족 비등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보자 가운데 이러한 유형은 없었지만 제보자들과 면접 도중에 '타인의 사례'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기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연연 중 나타나기도 하고, 독거생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형으로 파악된다.

"아주 적응 잘하는 기러기아빠도 있어요. 아주 신나게 잘 즐깁니다. 젊은 여성들과 재미있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앞집에 사는 분이신데 가끔 길에서 만나면 생기있고 즐거워 보였고 바쁘던데요."(사례7)

"마누라 잔소리 안 듣는 거는 좋아요."(사례1)

"미국에 있었을 때 주위에 모태학교수로 기러기아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말씀이 한국에서 일에 올인하고 방학되면 여기 와서 가족들에게 올인하고... 할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찮겠다 싶었어요"(사례3)

자신만의 적응 방식을 확보한 후 자기관리의 기제가 정착된 제보자들은 점차 독거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자신들의 독거생활에 순응하게 된다. 두번째 적응 유형인 방

7) 이렇듯 위축된 기러기 아빠의 사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등장한다. 가령 "기러기아빠는 최악의 상사로 꼽힌다.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보내고 나면 지갑이 얇아져 회식 때마다 구두끈을 천천히 매고...... 쓸렁한 빈 집에 가기 싫으니 퇴근도 늦어 부하직원에게도 야간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경향신문, 2003.10.21)와 같은 기사이다. 그리고 50대 기러기아빠의 사망 사고 현장에 반병쯤 먹다 남은 소주 패트병, 시켜먹은 떡볶이와 냉면 그릇이 밥상에 있었다(한겨레 2005.10.17)는 기사내용은 위축되었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5) 서울 혜민병원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이 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은 기러기아빠 87명을 대상으로 조사.

6) 앞의 비경제적 비용 부분의 예를 참조

황유형의 제보자들은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만약 이러한 인내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 극한적인 예로 가정해체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황유형의 제보자는 본 연구의 제보자들 가운데 없었는데 독거생활로 인한 이점을 합리화하고 쉽게 순응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러기 아빠들의 독거 생활을 유지하여 나가는 동안의 경험과정을 1) 당황의 단계, 2) 방황의 단계, 3) 인내의 단계, 4) 수용의 단계로 분석한 최양숙(2005)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대부분 순응에 성공하는 기러기 아빠들은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가족관계에 더 몰입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하는 기러기 아빠들은 디지털 매체를 많이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기러기아빠의 유형별로 적응 과정의 양상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첫 번째 유형인 사례2와 사례3의 경우는 적응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대체로 방황유형에 속하지만 방황의 적응방식을 터득한 후 인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두 번째 유형의 기러기 아빠들은 아내와 자녀만을 외국에 보내놓은 경우로 사례6,7,8,9,10이 해당된다. 이들 역시 생활변화에 대하여 적응과정에서 다른 기러기아빠들에 비해 상당한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방황유형에 속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적응 방식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체로 자영업 및 회사원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여유의 부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자기관리의 어려움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유형인 가족이 이민으로 갔다가 아버지만 귀국한 경우인 사례1과 사례5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관리 의욕과 기제가 확립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족 이민가까지의 신중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전에 비동거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준비가 되었고 가족이민생활을 통해 현지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기러기아빠 생활의 주요 문제유형과 대처 방식

앞에서 제보자들의 생활변화 모습과 적응 과정을 토대로 그들의 생활문제를 세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는데 제보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가족관계에서의 상실감, 혼자사는 외로움, 경제적 압박이다. 첫째 문제 유형은 가족 유대관계의 어려움으로 '소외감'과 '상실감'이다. 외국생활에 행복해 하는 가족들에서 자신이 소외되었으며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아버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 버거움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였으며 그들은 가족 간의 유대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⁸⁾ 자녀들의 서구화(또는 미국화)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치기도 하고 자괴감을 느끼기 까지 하였으며 자신들이 희생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 희생이지요. 희생이고 말구요. 아빠 입장에서는 완벽한 희생이에요. 가족과의 생활 또 친척들과의 관계, 성적인 측면 모두 희생하는 거예요"(사례9)

"우리 아이들은 한국인이지만 아메리카나이즈되었다고 봐야지요. 특히 큰 아이는 90% 미국인입니다. 자신 문제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거의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또 잘하고. 원래 대학도 메디칼 스쿨로 갔는데 중간에 경영 마케팅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어찌겠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도 저는 인종차별 받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밖에 없지 않느냐 정도만 조언했어요. 나중에 배우자도 아메리카나이즈된 한국인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 말이 안통한다고 하네요"(사례2)

가족관계에 있어서 기러기아빠들의 부부관계는 본질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보자들의 대화 속에서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로 언급되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서는 부부생활의 문제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유학가기 전에 부부문제는 참아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는 제보자도 많았다⁹⁾. 제보자들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혼 사례를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과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가족관계에서의 소외감과 실망은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지에서 남편 왔다가 가면 결과적으로 두가지

- 8) 이러한 가족유대의 상실은 가족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부모역할관에서는 더욱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부중심이고 노후 자금을 완전히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이해하는 민족은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자녀교육에 가정이 올인한다고 합니다"(사례4 기러기 엄마)
- 9) 한편 제보자들은 남성인데 반해 상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형으로 나뉩니다. 막 싸우다 가는 유형과 더 좋은 관계를 가는 유형...막 싸우다 가는 유형은 자신을 희생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도 스스로 희생물이라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툼의 소재가 되더라고요.”(사례1)

제보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방법은 ‘빈번하게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것’과 ‘방문할 때마다 가족단합을 위한 이벤트를 여는 것’이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화나 이메일 이외에도 메신저나 화상채팅 등 다양한 대화수단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족간의 소통의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용이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러기아빠들의 자기 존재 인식이었는데 자신이 희생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가족의 중심’(사례7)이자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사례1) 역할로 인식하는 경우 가족유대관계가 더 돈독하였다.

“저와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만 전화로 화상을 통하여 자주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며 아쉬운 점을 극복하려 노력 합니다”(사례5)

“방학마다 15일에서 1달간 방문해서 그 때마다 한 일주일간은 무조건 가족단합대회를 했고 가족여행을 다녀요. 더 열심히 가족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했죠. 오히려 가족끼리 뽀뽀 몽쳤다고나 할까. 이전 딸들하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서로 어려운 생활을 견디어 냈기 때문에 요즘도 서로 아끼고 그럽니다”(사례1)

“정말 디지털기술 때문에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메일에 화상채팅에...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거나 무슨 시험 봤거나,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그날로 당장 이메일로 보내오고...해서 가족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았습니다”(사례1)

두 번째 기러기아빠의 문제 유형은 ‘혼자 사는 외로움’이다. 한국의 남성들은 독거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기혼이면서 독거생활을 해야 하는 ‘기러기아빠들’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남성과 달리 생활을 즐겁게 꾸려 나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에 대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러기아빠들은 국내에 홀로 남은 후 부부간 이별로 인한 외로움(71%)으로 크게 힘들어하고 있으며, 성(性)적 욕구에 대한 불만족도(11%)도 상당하다고 응답했고 또 집안

대소사 때(21%)나 경제적 부담(18%) 등도 기러기아빠가 된 후 힘든 점이라고 답했다(매일경제, 2003.7.5). 또 이러한 독거생활이 시한부가 아니라 자녀 대학 입학까지 장기화되거나 외국생활에 즐거운 아내나 자녀들이 계속 연장할 경우 기러기아빠들은 더욱 불규칙하고 향락적인 생활에 쉽게 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사례3의 경우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누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해 줬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생활일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제보자들은 대개 이러한 외로움을 주변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⁰⁾. 운동, 술자리도 주변 동료의 도움이 매우 컸다. 또 제보자들과 면접 속에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대부분 언급하고 있어서, 혼자 사는 외로움의 극복전략으로 자기관리의 습관화를 채택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이 생각하는 자기 관리의 첫 번째 요건은 건강관리였다. 자기관리를 중요하게 언급하는 제보자들의 경우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 운동, 독서,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회사 일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업무성과가 매우 높아졌다는 반응도 있었다.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 일주일에 2-3번씩 테니스치고 술잔잔하고 뭐 그러면서 버텼고, 주말에는 서울에 어머니 계셔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올라간다고 생각했거든요...그러면서 지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그냥 적응해야지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일로 대충 커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 11시나 12시에 퇴근했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나왔습니다.(사례2)”

“독서를 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하게 되었습니다”(사례6)

“위낙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지만 아이들 보낸 후 초기에 힘든 시간이 지난 후 45년간 취미생활에 폭 빠졌는데 성당도 다니지만 악기 섹스폰을 연주하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서 주로 돈이 들지 않는 조깅을 즐겨 했습니다.”(사례1)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생각하게 되어 그런지 술은 전보다 줄이게 되고 담배도 끊은 상태이고 건강을 더 신경쓰게 되어 운동(헬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사례5)

10) 혼자가 된 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는 술(14%)보다는 스포츠와 여가생활(46%)을 즐기거나 업무에 더 집중(3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신문, 2003. 8. 31).

세 번째 기러기아빠의 문제는 '경제적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제보자들 대부분 경제적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압박감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제보자들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기러기가족 생활을 완료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언론보도 사례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기러기 아빠의 경제적 문제는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렵다. 기러기아빠들은 경제적 고통을 받을 때도 주변의 원조를 받기 어렵다. 조기 유학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위 '돈이 있는 집'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저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는 경제적 곤란 속에서 형제자매 등 친인척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 인한 사적 보조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러기아빠는 경제적 곤란이 심화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기러기가족은 친인척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곤란해요. 자녀 외국 공부시키는 것은 질시 대상이에요. 배부른 소리한다고 해요. 우리는 해외여행도 못 갔는데 부모 잘 되어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을 왜 도와주냐고 해요. 말도 못합니다. 여유있는 친인척이 그냥 주는 경우는 있어도 말도 못 꺼냅니다”(사례4)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기러기아빠도 있다. 기러기아빠 대부분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시간 관리상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1의 경우 필수 수업시간 이외에 평균 6시간의 초과 시간을 수업하고 있었다. 또 사례5의 경우 주말에는 부업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수입을 벌고 있다고 하였으며 사례10의 경우 부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말에 주로 관리하고 있었다.

“나는 원래 빚이나 대출 이런 거는 전혀 안하고 살았다. 나한테 사업가 기질은 전혀 없다. 없으면 없는 데로 대처하라고 했다. 줄이면 된다고 본다. 경제적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더 잘해 주고 싶은 마음 있었지만 안되는 걸 어찌나...아내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하였습니다.”(사례1)

“정말 열심히 일했고 보통 보다 2.5배 정도 더 일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고, 현재 제가 인생에서 최고점인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일을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사례2)

제보자들의 사례 가운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기러기가족생활을 하였던 사례1의 경우, 재정적 수준에 맞추어서 송금을 하고 또 현지의 소비생활표준을 결정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또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는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외국 현지에서 아내들이 아르바이트(한국인 교회 비서나 식당보조원 등)를 하고 있었다(사례1, 사례2, 사례10). 아내들이 획득한 소득이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국내 기러기아빠들에게는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기러기 아빠의 경제적 압박감은 정서적인 문제인 소외감과 외로움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기 전에 이를 해소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생활표준을 재조정을 하는 방법이나 소득원천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서 기러기아빠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것이다.

기러기 아빠의 유형별로 주로 어떤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기러기아빠의 첫 번째 유형인 사례2와 사례3의 경우 대학교수라는 안정적인 직업상태로 인해서 경제적 압박감보다는 가족유대와 아버지 역할의 상실과 같은 비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인 사례 6,7,8,9,10의 경우 송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재정상태 변화와 비동거생활 수준 변화 등에 대해서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유형의 사례들의 직업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나 회사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 유형인 가족이민 후 아버지만 귀국하고 왔다갔다하는 유형인 사례1과 사례5의 경우 경제적으로 압박감이 타유형에 비해 비교적 낮았으며 비경제적인 생활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유형의 제보자가 직업적 안정성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가족이민으로 인하여 '가족 비동거 체계'에 대하여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자녀와의 관계 소통 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채택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로서 단지 '도구적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의 경우 경제적 압박감을 감소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경우가 한 사례 정도 나타나고 있고 아내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체로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책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VI. 결 론

이 연구는 심층면접법 및 서면면접법을 이용하여 기러기 아빠들의 경제적인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대일 면접을 꺼리는 연구대상들이 많아서 심층면접은 4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차선책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을 6명의 제보자에게 실시하였다. 면접에 응한 제보자들은 성공적으로 기러기아빠 생활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향이 있어서 기러기아빠에 대한 '언론 보도 기사'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분석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기러기 아빠들의 생활 모습을 크게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경제적 생활 모습의 특징은 과도한 송금 규모와 재산 상태의 축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실제 유학비용과 생활비 송금의 부담이 가장 결정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재산상의 축소를 겪게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기러기아빠들의 비경제적 생활의 특징은 독거생활에의 부적응으로 인한 '잃어버린 가족생활'과 외로움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자기관리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기러기 아빠들의 송금액은 3천만에서부터 1억4천만원에 이르는 등 개인적 차이가 무척 큰데, 거주 지역, 사교육비, 유학지의 생활수준, 부인의 소득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기러기 가족들의 재산상 변화는 기러기 아빠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제보자들 대부분 보유한 주택이나 부동산, 저축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학경비 지출에 따라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러기아빠들의 독거생활 적응 과정은 고통 → 수용 → 포기 혹은 인내 혹은 즐거움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러기아빠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의 '자기 존재성'이었는데 단지 경제적인 수단에서 벗어나 정서적 유대와 존재의 무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러기아빠들이 겪는 문제의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소외감과 상실감, 둘째는 혼자 사는 외로움, 셋째는 경제적 부담이다. 제보자들은 대부분 기러기 아빠로서의 생활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 훨씬 더 힘들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사전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보자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소외감과 상실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유대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고 방문했을 때는 가족이벤트를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또 혼자 사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위축되고 주변의 도움에 수동적인 경우 부적응 상태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는 방법에서는 자신을 경제적 전능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송금하고 그것을 아내와 가족에게 이해시키고 있었고, 가장 최저의 경제적 안정 장치인 비상금, 보험 등은 유지하고 있어서 위험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러기 아빠'의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기러기아빠가 되는 것은 개인 가족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이전에 가족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러기가족의 문제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러기가족 모임에 참석해 보거나 언론 보도 등을 검색해서 가족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유학이 꼭 필요한지, 조기 유학의 목적이 무엇이며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서로 적응하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신이 희생자라고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 기러기아빠생활의 적응이 더 용이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기러기아빠의 자기인식이 이 생활에서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제보자들은 면접하는 과정에서 기러기아빠로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는 바, 향후 기러기가족에 대한 선택을 하려는 남성의 경우 본인들이 이러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 기러기아빠로서 고통을 받는 경우, 자신의 성격이나 활동성에 있어서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주변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을 타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기러기아빠 모임에 참석한다든지, 동료와의 모임에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차원에서 기러기아빠의 생활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지에 있는 가족들은 아버지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러기아빠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의 외롭고 힘든 생활에 대한 보상심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가족구성원 개인의 신상에서 발생한 사

건들을 공유하도록 모든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가족유대를 위한 이벤트를 만드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가족이 거주하는 각자의 지역에서 자신의 일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한계에 대하여 가족들이 서로서로 이해하고 경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보자들의 경우 경제적 책임이 기러기아빠에게 집중될 때 그 강박관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차원에서 기러기아빠의 생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언론보도의 경향은 기러기아빠의 양산이 사회적으로 외화유출, 가정해체 등의 문제와의 관련성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기러기아빠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또 온정적인 필요는 없다. 기러기아빠가 10만 이상이 되고 있고 기러기아빠생활을 하는 남성들의 연령이 30-40대인 점을 감안할 때 기러기아빠의 생활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질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들이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기러기아빠들의 경제문제를 지원하는 시장에서의 장치, 예컨대 보험이나 대출 및 재무설계 프로그램과 같은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이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기러기아빠들의 경제적 압박감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살과 같은 극한적인 파국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 기러기아빠들의 정신적 및 가족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장치는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기러기아빠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속에 있었다. 유학지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국내 친척들과 동료나 친구들의 따뜻한 시선과 도움은 이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기러기아빠들이 사회단체를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기러기아빠들의 모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들이 건강하게 가족과의 비동거 생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모임의 장(場)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 사회복지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를 위한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러기아빠들의 상담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이를 기초로 기러기아빠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 기러기아빠들의 직장에서도 '자기관리' 및 자조(自助) 모임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1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1월 27일

【참 고 문 헌】

- 김양희·장은정(2004). 장기분거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러기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 안광복(2004). 조기유학과 기러기가족- 그 원인적 치료를 위하여. **철학과 현실**, 60.
- 엄명용(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25-43.
- 이철영(2003). **밴쿠버에서 기러기아빠에게 쓰는 편지**. (주)탐메디오피아.
- 조명덕(2000). 한국학생들의 영어권 교육체제로의 이동현상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경원전문대학논문집**, 22, 173-198.
- 조용환(1999).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원정유학 모자녀 가족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진흥재단연구보고서**.
- 최경석 외(2003).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제2판**. 서울: 인간과 복지, 549-561.
- 최양숙(2005). **조기유학·가족, 그리고 기러기아빠**. 한국학술정보(주).
- 통계청(2005). 2005년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